

사문 2단원 선지 정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1. 1차적 사회화 기관 :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 가족, 또래 집단

2. 2차적 사회화 기관 : 전문적인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 대학, 난민 지원 센터, 신문, 산업체, 방송사, 직업 훈련소, 야간 대학, 축구 협회, 방송사, 기업, 미술 대학, 회사, 교육 연수원, 요리 학원, 공연 관람 동아리, 대학 연극학과, 청소년 수련원, 건축학과, 인터넷 쇼핑몰, 연기 학원, 증권사, 의과 대학, 기관 연수원, 영화 제작사, 예술 대학원, 광고 회사

3. 공식적 사회화 기관 :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대학, 직업 훈련소, 야간 대학, 미술 대학, 교육 연수원, 요리 학원, 대학 연극학과, 청소년 수련원, 건축학과, 연기 학원, 의과 대학, 기관 연수원, 예술 대학원

4.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 사회화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난민 지원 센터, 신문, 가족, 산업체, 방송사, 축구 협회, 방송사, 기업, 회사, 공연 관람 동아리, 인터넷 쇼핑몰, 증권사, 또래 집단, 영화 제작사, 광고 회사

5. 귀속 지위와 성취 지위 (영화 배우의 배역 → 지위 X - 2009)

(1) 귀속 지위 : 막내딸 (2006), 연예인 2세 (1811), 아들 (1909), 청소년 (2011)

(2) 성취 지위 : 자원봉사자 (1709), 아버지 (1706), 감독 (1606), 남편 (2006), 최고령 사원, 직장 동료 (1409), 화가, 담임 교사 (1411), 연극 배우, 집행 위원장 (1711), 가수 (1811), 영화 배우 (2009)

6. 역할 갈등 O, X 사례 (지위에 따른 역할과 역할 간의 갈등이어야 함)

(1) 역할 갈등 O 사례

- 막내딸의 면접일과 해외여행 기간이 겹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2006)
- 부부로서 설거지를 같이 하는 남편의 역할과 설거지를 같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역할 간 갈등 (1406)

- 교사로서 받는 교육연수원에서의 연수와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입원으로 인해 연수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 간 내적 갈등 (1506)
- 독립 영화제의 홍보에 힘쓰지, 영화의 홍보에 힘쓰지 고민 (1711)

(2) 역할 갈등 X 사례

- 갑은 더 큰 무대로 진출할 것인지, 안정된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 (1709)
-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 (1706)
- 향후 거취를 고민하던 갑은~ (1606)
- 방송 출연을 원했던 남편과 달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갑의 남편과의 갈등 (2006)
- 성과급 차등 지급으로 인한 구성원 간의 갈등 (1409)
- 화가가 되기를 원했던 갑은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싶지 않아 마음이 복잡 (1411)
- 갑은 부모가 미술 대학 진학을 허락했기 때문에 일단은 동양학과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1411)
- 진로 문제로 부모와 말다툼을 하였다. (1406)
-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으로 자녀 양육에 대해 남편과 갈등 (1806)
- 요리사의 꿈을 실현하고자 요리 학원을 다니지만 아내의 반대로 학원을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 (1506)
-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출연 제의를 받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 (1611)
- 가수를 그만두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배우로 전향해야 할지 고민 (1811)
- 구호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병원장의 아들로써 가업을 잇기를 바라는 부모님께 어떻게 생각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 (1909)
- 외국에 가게 되면 사랑하는 여자 친구와 사이가 멀어질까 봐 고민 (1909)
- 사범 대학을 계속 다닐지 말지 거듭 고민 (1906)
- 철학자 갑이 다른 입장을 가진 철학자들과 갈등을 겪음 (1911)
- 배역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촬영이 끝난 후에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음 (2009)
- 장기 휴가에 대해 상사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 (2011)
- 자신의 퇴직에 대해 부모님과 갈등 (2011)

※ 내집단 : 현재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있는 집단

※ 사회 집단 : 지속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져야 함

※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 내집단 : 해당하는 주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함 (그의 부모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음)

※ 역할에 대한 보상 (제재) 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제재) 이 맞는 말임.

- 지위, 역할, 역할 행동,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제재) 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예기 사회화, 재사회화에 밀착이 그어져 있으면 그 사례가 정말로 사회화가 맞는지 확인해야 함

- 팀장 진급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팀장 연수는 재사회화이면서 예기 사회화임 (1409)
- 예비 부모 교실과 신입 사원 연수는 예기 사회화임 (1806)
- TV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은 재사회화가 아님 (1811)
- 혼자서 사색하는 것은 예기 사회화가 아님 (1911)
- 여러 분야의 서적을 단순히 읽기만 한 것은 재사회화로 보기 어려움 (1911)
- 소방공무원 채용은 예기 사회화가 아님 (2006)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1) 공동 사회

- 구성원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1406)
- 구성원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성된 집단이다. (1411)
- 공식 조직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전인격적인 인간관계로 주로 나타난다. (1411)
-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1611)
- 법적 제재보다 관습적 제재가 주로 적용된다. (1711)
- 본질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다. (1906)
- 본질 의지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1911)

(2) 이익 사회

- 구성원들의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 (1506)
- 구성원들의 특정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 (1606)
- 결합 의지에 따라 구분할 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 (1611)
-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조직은 모두 이익 사회로 볼 수 있다. (1611)
- 결합 의지에 따라 분류할 때, 구성원의 선택 의지에 의해 결합한 집단이다. (1711)
- 선택적 의지에 의해 형성되는 이익 사회이다. (1811)
- 구성원의 선택적 의지에 따라 형성된 집단이다. (2006)

(3) 1차 집단

- 친밀한 인간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1709)
- 접촉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구성원들이 대면 접촉을 통해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집단이다. (1711)
- 법적 제재보다 관습적 제재가 주로 적용된다. (1711)
- 전인격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1809)
- 구성원 간 직접적 접촉을 통한 전인격적 관계에 기초한 집단이다. (1906)
- 1차 집단에서의 인간관계는 전인격적이다. (2009)
- 비공식적 제재가 일반적이다. (2009)

(4) 2차 집단

- 형식적,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1706)
- 구성원 간 수단적 만남과 간접적 접촉이 이루어진다. (1709)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관계가 주로 나타난다. (1711)
- 관습적 제재보다 법적 제재가 주로 적용된다. (1711)
- 과업 지향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나타난다. (1909)
- 공식적 제재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1909)
- 모든 2차 집단은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2009)

(5) 자발적 결사체

- 선택 의지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1406)
-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1411)
-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1411)
- 자발적인 동기로 결합된 집단이다. (1611)
-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성된다. (1706)
-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공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1706)
-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공통 관심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이다. (1711)
- 공동의 목표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로 결성된 집단이다. (1906)
-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결성한 집단이다. (1911)
-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속한다. (1911)
- 사회 다원화에 기여한다. (1911)

(6) 공식 조직

- 공식적 조직 목표와 명시적 규범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이다. (1411)
- 과업 달성을 중시한다. (1606)
- 비공식 조직에 비해 공식적 규범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1606)
- 공식적인 목표와 과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조직 (1611)
-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가 적용된다. (1611)
- 비공식 조직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크고, 구성원이 이질적이다. (1706)
- 비공식 조직에 비해 구성원에 대한 공식적 통제의 정도가 강하다. (1706)
- 과업 달성을 위한 조직이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 원리가 적용된다. (1709)
- 기업의 노동조합은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1709)
- 공식적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을 통제한다. (1709)
-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지위와 역할이 명확한 조직이다. (1906)
-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된 집단이다. (1909)
-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1911)
- 과업 지향적인 집단이다. (1911)
- 구성원의 지위와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집단이다. (2006)
- 주로 공식적 규범을 통해 구성원들을 통제한다. (2006)
- 목표가 명확하고 구조화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 조직이다. (2009)

(7) 비공식 조직

- 사익을 추구한다. (1409)
- 비공식 조직의 성립은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한다. (1606)
- 친목 도모를 중시한다. (1606)
- 공식 조직 내에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취미, 관심사 등에 의해 형성된 조직이다. (1611)
-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모두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다. (1611)
- 공식 집단을 기반으로 출현하여, 공식 조직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706)
-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사회 조직은 비공식 조직에 속하지 않으나,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다. (1706)
-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친밀한 인간관계에 바탕을 두고 자발적으로 결성한 것이다. (1709)
- 과업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909)
-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을 전제로만 존재하며, 공식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파벌을 조성하는 역기능도 있다. (2009)
-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2009)

(8) 관료제와 탈관료제

-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표준화된 업무 처리 방식을 통해 안정된 조직을 운영한다. (1406)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업무 담당자가 제시하는 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하기 쉽다. (1406)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1406)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구성원 간 업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 (1406)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업무 부서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해체시킨다. (1406)
- 탈관료제는 경력보다 업무 성과를 고려한 차등적 보상을 중시한다. (1411)
- 관료제와 탈관료제 모두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지향한다. (1411)
- 탈관료제는 의사 결정 권한의 집중보다 분산을 지향한다. (1411)
- 관료제는 조직의 운영에서 유연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한다. (1411)
- 탈관료제는 규약에 따른 과업 수행보다 창의적 과업 수행을 중시한다. (1411)
- 관료제는 무사안일주의로 인한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1511)
- 탈관료제는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1511)
- 관료제와 탈관료제 모두 공식적 통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한다. (1511)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상향식 의사 결정과 수평적 의사소통이 더 중시된다. (1511)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업무 결정권이 분산되어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가 더 용이하다. (1511)

(9) 기출 문제 속 사례

- 1406: 환경 단체, 대학 내 동아리, 등산회
- 1411: 시민 단체
- 1506: 고등학교, 교내 댄스 동아리, 가족
- 1509: 학생회, 체육교육과
- 1511: 또래 집단, 학교
- 1606: 대학 내 홍보 부서, 대학, 종친회
- 1609: 환경연대, 학교 내 연극 동아리
- 1709: 기업의 노동조합
- 1711: 이익 집단
- 1806: 기획사의 봉사 동아리, 방송국, 국세청, 대학교 총학생회, 연예인 야구단
- 1809: 아이돌 그룹,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 기획사, 기부 단체
- 1811: 교육청, 대학원, 사내 야구 동호회, 청소년 봉사 단체, 학급
- 1906: 법학 전문 대학원, 시민 연대, 시민 연대의 야구 동호회, 음악 학원
- 1911: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 단체
- 2011: 평론가 협회, 대학 연극영화학과
- 2106: 유치원, 게임 동호회, 동창회, 대학교 학과 내 독서 소모임, 출판인 협회, 미술 학원, 정당, 환경 운동 단체

사회 실재론 vs 사회 명목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1) 사회 실재론

- 개인 행위의 의미를 사회 속에서 찾는다. (1406)
- 인간의 행위를 사회적 조건에 의해 설명 가능한 것으로 본다. (1406)
- 사회 속의 개인은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의무를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본다. (1406)
-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다. (1409)
- 사회 구조는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한다. (1409)
-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다. (1506)
- 개인은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1506)
- 사회가 개인의 총합 이상이라고 본다. (1506)
- 사회가 발전하면 개인도 발전한다고 본다. (1506)
-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1506)
- 사회 제도의 개혁을 중시한다. (1506)
-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1509)
-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1509)
- 범죄율은 개인의 범죄 행동의 합으로 구성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이다. (1511)
-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1511)
- “축구팀의 역량은 선수들의 개인기보다는 조직력에 의해 결정된다.” (1511)
- 개인의 능동성보다 사회 규범의 구속성을 중시한다. (1606)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의식 변화보다 제도적 개입을 강조한다. (1606)
- 사회적 사실은 개인적 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 (1609)
- 개인은 집단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 (1609)
- 사회 현상은 순수한 개인적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회 전체의 논리를 찾아서 이를 설명해야 한다. (1611)
-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고유한 실체라고 본다. (1611)
-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1611)
- 사회 정책으로 인간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1706)
-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도적 측면에서 찾는다. (1706)
- 사회 구조가 개인에 대하여 불가항력적 존재라고 본다. (1706)
-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 그 이상으로 본다. (1706)
- 사회가 개인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지닌다고 본다. (1709)
-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1709)
- 개인은 집단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1709)
- 사회화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행위 양식을 개인에게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다. (1711)
- 사회 속 개인의 어떠한 행위 양식도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경우는 없다. (1711)
- 조직의 규모는 조직의 독특한 특성을 형성하고, 개인은 이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806)
- 개인은 집단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살아야 한다. (1809)
- 각 개인의 자유 의지는 집단 규범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발현된다. (1809)
- 개인의 의식과 행위는 사회에 의해 규정된다. (1809)
- 사회의 구속력이 개인의 자유 의지보다 우위에 있다. (1809)
- 제도란 개인의 의식 외부에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1811)
- 사회가 개인들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1811)
- 사회 통합의 정도에 따라 개인의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06)
- 개인의 행위는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사회 구조적 상황의 산물이다. (1909)
- 사회 속 개인의 어떠한 행위 양식도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1909)

-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본다. (1909)
-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 제도의 힘을 중시한다. (1909)
-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 (1911)
-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날로 심해지면서 결혼 시기를 놓친 사람이 늘어난 결과이다. (1911)
- 주택 가격 폭등으로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이다. (1911)
- 우리는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2006)
- 개인의 속성은 사회의 속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2006)
- 전류는 사람들을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외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2009)
- 개인은 오직 사회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2009)
- 사회 현상은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2009)
-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2106)
-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2106)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의식 개선보다 사회의 제도 개혁을 강조한다. (2106)

(2) 사회 명목론

- 개인의 이익이 늘어나면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1406)
- 개인의 능동성과 독립성을 강조한다. (1406)
-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1409)
- 사회 현상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 (1409)
- 개인이 없으면 사회도 없다. (1506)
-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개인이 합의하여 만든 것이 사회이다. (1506)
-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1506)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의식 개선을 강조한다. (1506)
-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1509)
-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1509)
-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이라고 본다. (1511)
- 인간의 행동과 사회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개인적 요인을 중시한다. (1511)
- 사회를 실체가 없는 허구적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1606)
- 사회가 개인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1606)
- 사회에 대해 구성원의 개인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1609)
- 사회 구조가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집합한 결과라는 점을 전제한다. (1609)
-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규정하는 근원적인 규범이 존재함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1609)
-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1609)
-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1609)
- 사회도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복잡한 현상도 개별 요소로 설명해야 한다. (1611)
- 개인의 자유 의지를 강조한다. (1611)
-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1611)
-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 (1611)
- 인간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 (1706)
- 개인의 이익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본다. (1709)
- 사회 현상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1711)
-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1711)
-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 (1806)
- 사회는 개인의 속성에 의해 그 속성이 결정된다. (1806)

- 사회의 특성은 개인적 행동이 반영된 결과이다. (1809)
- 집단 행동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표출된다. (1809)
- 개인의 정신 상태가 유일하게 관찰 가능한 대상이 된다. (1811)
-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고 본다. (1811)
- 자살률의 높고 낮음이 집단의 특성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1906)
-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사회를 연구해야 한다. (1906)
- 사회는 개인의 속성을 모두 합한 것에 불과하다. (1906)
- 사회적 조건보다 개인의 자유 의지가 인간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1906)
- 사회는 개인들 사이의 다양한 상호 작용의 총합과 동일시된다. (1909)
- 사회란 상호 작용에 의해 결합된 개인들을 지칭하는 개념일 뿐이다. (1909)
- 사회로부터의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1909)
-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이 늘어난 결과이다. (1911)
- 결혼보다 다른 개인적 가치 추구를 더 중시하여 결혼을 미루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이다. (1911)
- 사회 현상은 개인의 행위나 심리 상태로 환원된다. (2006)
-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2009)
-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2009)
-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들의 능력을 합친 것과 같다. (2011)
-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 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2011)
- 선수 각자의 실력이 팀 실력을 결정한다. (2106)

일탈 행동 (아노미, 차별적 교제, 낙인)

〈Comment〉

- 1)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구분하는 문제가 20학년도 수능부터 나왔다. 각각의 특징을 구분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
- 2) 윤리 과목과 마찬가지로 A, B, C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 3) 평가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헛갈리는 선지는 출제하지 않는다. 가령, 차별적 교제 이론 자체가 거시적 관점인지 미시적 관점인가를 따지는 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1)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1409)
- 무규범 상태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1409)
-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강력한 사회 통제를 강조한다. (1506)
-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사회 규범의 부재를 강조한다. (1706)
- 일탈 행동이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촉발된다고 본다. (1706)
-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하지 못함으로써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1811)
- 급격한 사회 변동과 전통 규범의 통제력 약화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1909)
-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으로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2006)
-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탈 행동을 야기한다고 본다 (2006)
- 일탈 행동을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인식한다. (2009)

(2) 머튼의 아노미 이론

- 목표와 수단의 괴리를 일탈의 근본적 원인으로 본다. (1409)
- 문화적 목표에 도달할 기회의 제공을 해결 방안으로 중시한다. (1411)
-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할 경우 실업자들의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9)
- 일탈 행동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1706)
- 일탈은 문화적으로 정의된 열망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수단 사이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다. (1806)
-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의 부족을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1909)
- 일탈 행동을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인식한다. (2009)
- 일탈 행동 예방 방안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지지할 것이다. (2011)

(3) 차별적 교제 이론

- 비행 친구와 어울린 이후에 최초의 비행을 저지른다고 본다. (1409)
- 비행 친구와 어울리면서 그들의 가치나 태도를 배워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1409)
-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친구 따라 강남간다.” (1409)
-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 확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1409)
- 일탈 행동도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1506)
- 단지 일탈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가치와 태도까지 내면화하게 된다. (1506)
- 차별적 교제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강조한다. (1506)
-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가치의 습득을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1609)
-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상호 작용 촉진을 제시한다. (1609)
-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강조한다. (1706)
- 일탈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찾는다. (1806)
- 일탈 행동이 비행 집단과의 교류로 인한 잘못된 사회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1809)
- 일탈 행동의 발생에 있어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 과정을 강조한다. (1811)
- 일탈 행동의 원인을 거시적 측면에서 찾지 않는다. (1906)
 - 차별적 교제 이론 자체가 거시적인지 미시적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차별적 교제 이론에서 말하는 일탈 행동의 원인은 일탈자와의 상호 작용이므로 일탈 행동의 원인만은 미시적 측면에서 찾는다. 일탈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과정은 객관적이므로 차별적 교제 이론에는 거시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 일탈 성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다. 또한, 일탈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도 아니다. 일탈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형성되면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1911)
-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1909)

(4) 낙인 이론

- 본질적으로 일탈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본다. (1409)
- 일탈에 대한 규정을 신중하게 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중시한다. (1411)
- 사람들이 일탈 행동을 한 사람을 일탈자로 대하면, 그 역시 스스로를 일탈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1506)
- 일탈 행동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에 주목한다. (1506)
-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합의된 기준이 없다고 본다. (1506)
- 지속적인 상담 과정을 통해 자아상이 새롭게 바뀐 상습 범죄자의 경우 범죄를 중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1509)
- 상호 작용을 통한 2차적 일탈 행동의 발생에 초점을 둔다. (1511)
- 일탈 행동의 구조적 원인보다는 일탈자가 되어 가는 내면적 과정에 초점을 둔다. (1606)
- 최초의 일탈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이 이차적 일탈을 초래한다고 본다. (1606)
- 일탈 행동이라고 객관적으로 정의되는 행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1609)
- 일탈 행동에 대한 규정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1609)
-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1706)
- 일탈 행동 자체보다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한다. (1706)
- 비행을 저지른 후에 따가운 주위의 시선과 소위를 경험하면서 자아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1706)
- 일탈 행동을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1711)
- 일탈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찾는다. (1806)
- 차별적인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1906)
- 최초 일탈보다 일탈 행동의 반복에 초점을 맞춘다. (1906)

-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 (1909)
-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1909)
- 규범을 위반한 행동이 모두 일탈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009)
- 일탈 행동이 사회화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2009)

*** 낙인 이론이 아닌 것**

- 최초의 일탈을 방치하면 또 다른 일탈로 이어진다고 본다. (1606)
- 사소한 사회적 무질서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일탈을 초래한다고 본다. (1609)

(5) 갈등 이론 (아직 정답 선지로는 나온 적 없음)

- 경제 구조의 특성과 그로 인한 계급 간 갈등을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1411)
-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그로 인한 집단 간의 갈등을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1609)
-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불평등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강조한다. (1706)
- 지배 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사회 제도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1811)
- 대립하는 집단 간 갈등의 해소를 일탈의 대책으로 본다. (1909)
-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2006)